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WSJ:백악관, 소비자 생활비 경감 방안 모색
- Bloomberg: 임금 낮고 열악한 일자리 지원자 늘고 있다
- Bloomberg:연준 부의장 Jefferson “고용 리스크는 늘고, 인플레이 위험은 줄어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모건 스탠리 “내년에 S&P 500 16% 상승”
- YahooFinance:버크셔의 49억불 매입으로 구글 주가 상승

[주택]

- YahooFinance 8월에 미 주택 건설 지출 규모 반등

[미국 행정부]

- Bloomberg: 연방재무장관, “가구당 2천불 지급은 의회 승인 필요”

[무역 전쟁]

- WSJ: 유럽연합, 미 철강 관세 확대 관련 미상무장관에 우려 표명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Bloomberg: 포드와 아마존, 중고차 온라인 판매 협력

[미국 경제]

WSJ: White House Hunts for Ways to Lower the Cost of Living

백악관, 소비자 생활비 경감 방안 모색

- 트럼프와 측근들은 이번 달 유권자들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및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를 안겨준 이후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 부담 경감을 모색하고 있다.
- 선거 직후 트럼프 측근들은 그에게 ‘생활비 부담 경감’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면서 유권자들의 좌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.
- 이와 관련 행정부는 쇠고기, 커피, 견과류, 양념과 수십가지의 농업 식품의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The Job Market Is Heating Up — for Jobs That People Usually Don't Wa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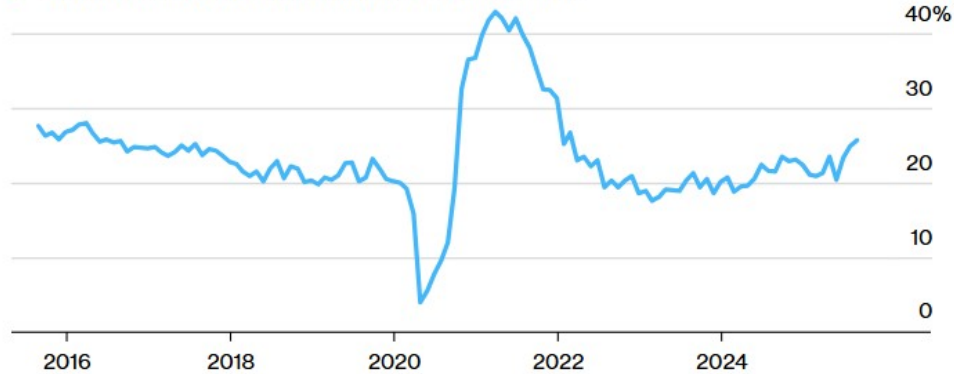
임금 낮고 열악한 일자리 지원자 늘고 있다

-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미국내 일자리 지원자들이 늘고 있고 이들 직종의 이직률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일시적인 대체 교사와 교도관에 이르기까지 이들 직종의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.
- 최근 블룸버그 뉴스가 Harris 여론 조사를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 취업이 된 미국인 과반수는 “현재 직장을 잃을 경우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다시 얻는데 얼마나 소요 될까?” 하는 질문에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.
- 전통적으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용주들이 이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. 팬 데믹 이후 임금이 27%나 상승하고 구인난을 겪었던 직종에 이런 일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이다.

Prolonged Unemployment

A slowdown in hiring has led more workers to be unemployed for longer

Share of unemployed out of work for 27 weeks or more



Source: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

Note: Chart uses latest available data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Fed's Jefferson Sees Increase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

연준 부의장 Jefferson “고용 리스크는 늘고, 인플레이 위험은 줄어”

- 연방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은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늘어나는 대신에 인플레이-상향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.
- 이 같은 입장은 오는 12월 9일과 10일의 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.
- 그는 앞으로 한번에 장기적인 통화 정책을 내리기 보다 회의 때마다 지표를 판단해 결정하는, 이른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

YahooFinance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Morgan Stanley's Wilson Is Among Top Stock Bulls With Call for 16% S&P Rally

모건 스탠리 “내년에 S&P 500 16% 상승”

-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Michael Wilson은 내년에 걸쳐 S&P 500이 기업 실적에 뒷받침되어 16% 랠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.
- 그는 S&P 500이 내년말에 7,800 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되고 내년 2년에 걸쳐 S&P 500의 주당 순이익(EPS)이 각각 17%, 12%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러나 그는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'뜨거운 경제'가 인플레이를 올릴 경우에는 단기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.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Alphabet shares jump after Berkshire makes rare tech bet with \$4.9 billion stake

버크셔의 49억불 매입으로 구글 주가 상승

- 워런 버핏이 몸담은 Berkshire Hathaway가 구글의 주가를 대량 매입해 구글의 인공지능 투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구글 주가는 오늘 월요일 5% 이상 상승중이다.
- 이 회사는 구글의 주식 1천7백85만주를, 금액으로는 49억3천만달러 규모로 구입했다. 이 회사는 여전히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애플 주식을 적지 않게 처분했었다.
- 이 같은 매입은 기술주에 대한 증권가의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. 기술주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AI 열풍은 밸류에이션을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키웠으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천만불의 투자 수익이 불확실 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.

CNBC 기사

[주택]

YahooFinance: US construction spending rebounds in August

8월에 미 주택 건설 지출 규모 반등

- 지난 8월에- 미 주택 건설 지출 규모가 예상외로 반등했다. 높은 모기지가 단독주택 건축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주택 레노베이션 지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
- 연방 상무부 컨센스국은 오늘 월요일 미 주택 건축 지출 규모가 7월에 0.2% 상향 조정된 후에 8월에도 0.2% 증가했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8월의 주택 건설 지출비는 작년 동월에 비해 1.6% 감소했다. 이번 보고서가 늦게 나온 이유는 연방 섯다운이 43일간 계속되어 관련 부처의 운영이 최근 들어서야 재개되었기 때문이다.

Bloomberg 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Bessent Says Trump's \$2,000 Checks Would Need Congressional Vote

연방재무장관, “가구당 2천불 지급은 의회 승인 필요”

- 연방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에서 미 국민에게 2천불씩 지원하는 제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- 그는 부자들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에게 내년 어느 시점에 수표가 지급될 것이며 배당금 형식으로 이같이 지급하기 위해 관세로부터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말했다.
- 이 같은 방안은 2025년 예산중 정부가 견어돌일 수입 예상보다 2배 규모의 비용을 늘리게 될 수 있는데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잠정치에 따르면 6천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.

CNBC 기사

[무역전쟁]

WSJ: EU to Warn Lutnick Against Expanding US Steel Tariff Scope

유럽연합, 미 철강 관세 확대에 상무장관에 우려 표명

-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연합 생산 철강과 알루미늄 적용 관세 위험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올여름 양측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.
- 유럽연합은 특히 50% 철강 관세 품목이 넓어지면 양측간의 15% 관세 상한선 효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.
- 양측은 무역 관련 관세, 시장 접근, 경제적인 안보 이슈, 규제 협력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었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Ford Taps Amazon to Let Shoppers Buy Its Used Cars Online

포드와 아마존, 중고차 온라인 판매 협력

- 포드사는 전자상거래 온라인을 통해 인증된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아마존과 협력하기로 했다. 이로써 이 회사는 대령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두번째 회사가 되었다.
- 이 회사는 아마존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면서 ‘카트에 추가하기’ 버튼을 이용하면서 용자와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- 현재자동차는 이매 작년 하반기부터 아마존 온라인을 통해 새 차를 구매하기 시작했다.
- 판면에 포드는 Blue Advantage 인증을 통해 중고차만 온라인에서 판매하게 된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